

일 주 문

‘진정한 행복’ 국제선센터 특강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4월 21일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조계사 제주도 특별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4월 28~30일 제주 관음사, 송악산, 산방굴사, 천왕사 등을 순례하는 특별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2)768-8520

마곡사 관세음보살 이운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3~5일 산신기도와 함께 대웅보전의 관세음보살을 연화당으로 이운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041)841-6220

‘내포문화숲길’ 걷기 대회
내포문화숲길 이사장 지운 스님은 4월 4일 내포문화숲길 주말 걷기대회를 열고, 백제부흥군길 20코스를 답사했다.

열린선원, 타다유기 초청공연
서울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4월 12일 열린선원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정진과 타다유기(일본인 교사기수)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중심사 불교교리강좌 개설
광주 중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4월 9일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했다. (062)226-0108

구미 수행회 1주년 기념 법회
일산 덕양선원 주지 법상 스님은 4월 20일 구미 거사암 화관과 금오정사에서 구미 수행회 1주년을 기념하는 ‘1주년 기념 대비주 수행법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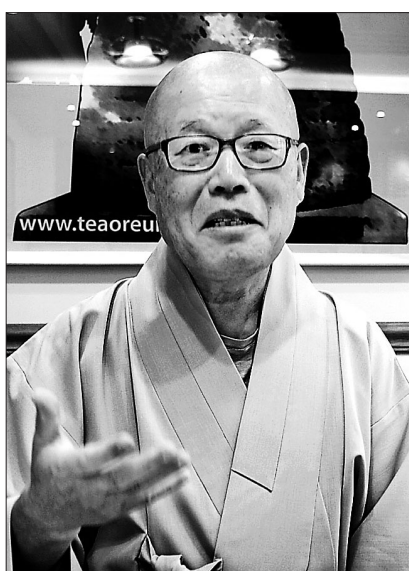
헤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헤민 스님은 4월 21일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관 주최로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마음치유 콘서트를 진행한다.

4월 화요 열린강좌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이사장은 4월 21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서 유정민 전문통번역사 초청 ‘통말,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동국대 병원 개원 기념 슬로건 발표
동국대 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은 4월 9일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슬로건을 발표했다.

“교육 복지 문화 포교에 진력할 터”

개산 40주년 맞은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4월 17~18일, 개산 40주년 ‘길’ 공연
요양원준공 10월 24일, 장전 법회 25일
시다르타 칼리지 내년부터 운영 계획

“올해는 하와이 포교의 거점 역할을 한 무량사가 문을 연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 선사화전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한달 동안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에는 요양원, 불교대학 등도 잇달아 개원해 앞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불사도 꾸준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미국 특히 하와이 포교의 대부로 불린다. 1996년 2대 주지로 취임한 도현 스님은 20년 동안 교민은 물론 현지인 포교에 진력하며 무량사를 명실공히 하와이 포교의 전진 기지로 성장시켰다. 특히 어려운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며 각종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도현 스님은 현지인들을 위한 외국인 법회도 15년 동안 꾸준히 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선과 명상에 관련된 법회를 연다. 그동안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총 회원만도 800여 명이 되며, 토요일 법회에 1백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현 스님은 한국인 2~3세를 위한 교민 포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일요일법회에서는 한글학교를 운영중이며, 다도교실도 열고 있다. 또한 종교생 중심인 보현무용단도 만들어 국악 교실도 진

연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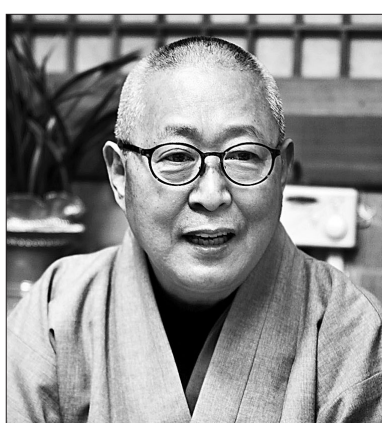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평택 출신으로 하와이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국악교육의 큰 틀을 세운 지영희 선생의 후계자 30여명이 참가해 관현악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등의 공연을 통해 스승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펼쳐진다. 또한 평택시는 지영희 선생을 매개로 호놀룰루시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호놀룰루시와 한국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중이다.

도현 스님은 “미국서 우리 민속공연이 춤으로 획일화 돼 있는데 국악 관현악과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도 결성해 현재 운영중인 보현무용단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문화포교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량사는 안길상 화백 초청 ‘부처님 목향으로 만나세’ 서화전도 4월 18일 오후 5시 개막해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10월 24일에는 무량사 팔로로 한인요양원 준공식을, 다음날인 25일에는 장전 40년 기념법회를 연다.

“팔로로 코리안 케어홈은 1백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고급요양원입니다. 4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주간노인보호센터도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하와이 시다르타 칼리지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하와이대와 사학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익 기자

“위안부 할머니 왕생 발원 불교의 소명”

5월 독도서 영산재 봉행하는 태고종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



내년 백령도, 제주도, 해외 등서 잇달아 영산재 펼칠 예정

“올해는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 및 전몰 군·경과 함께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해 넋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사진)은 영산재보존회가 5월 13~15일까지 2박 3일간 독도서 호국 영령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영산재를 봉행한다고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선암 스님은 “이번 행사를 특히 독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며 아울러 세계평화 기원과 평화적인

다. 이어 선암 스님은 “이번 독도 영산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백령도와 제주도서 영산재를 봉행하고, 6·25 참전비가 있는 해외에서도 잇달아 개최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 불교 최대 공연예술인 영산재를 봉행함으로써 분단 70년의 아픔을 씻고, 광복 70년의 민족화합과 국운응성을 기원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어우러져 수백 년째 전승 되어오는 국내 최대 불교전통문화 공연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는 부처님께서 영산서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또한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서 벗어나는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의이기도 하다. 김주익 기자

봉은사, 금강경 독송대정진 펼쳐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금강경 3년 대정진 두 번째 기도 정진을 진행했다. 이날 기도정진에는 신도 1200명이 동참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생활 속 실천”이라며 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 인양 촉구 2차 오체투지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4월 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세월호 인양 촉구 2차 오체투지를 개최했다.

3월 26일 1차 오체투지에 이은 2차 오체투지는 실종자 아홉 명의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조속한 세월호 인양 결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익명기부 약속 지킨 한 노스님

지난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2억원을 기부하며 조용한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던 익명의 노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익명의 노스님이 지난해 6월 2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에도 한사코 본인을 밝히길 꺼린 스님은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만간 다시 학교를 방문해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자랑권을 제공하고 싶다”는 또 다른 약속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기부금을 스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제1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 기본의식(3개월단기)
  - 도량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칭, 지장칭, 신중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 중급과정(범음, 범패)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39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화칭
- 작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리니작법
-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스님, 출가에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054) 262-1117(보경사 중무소)

※ 속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문의: ☎ 02)393-8027

지도: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